

작년 취업자 32.7만명 늘었지만...제조업·청년층은 내리막

작년 고용률 62.6%...연간 통계 작성 후 최대
12월 취업자 28.5만 ↑ ...실업률 33개월 만에 ↑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0년(-21만8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에 따른 사회활동이 늘어난 데다가 돌봄 수요와 정보통신업 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호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령층 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도 쪼그라드는 등 연령별·산업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4년(59만8000명) 이후 2015년(28만1000명), 2016년(23만1000명), 2017년(31만6000명) 20만~3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다가 2018년(9만7000명) 크게 둔화했다.

2019년(30만1000명)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은 바 있다. 이어 2021년(36만9000명)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2022년(81만6000명)에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3000명·5.3%), 숙박 및 음식점업(11

만4000명·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명·5.4%), 정보통신업(5만7000명·5.8%)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3만7000명·-1.1%), 부동산업(-1만8000명·-3.3%), 건설업(-9000명·-0.4%)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4만3000명(-0.9%)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0년(-5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었다. 증가한 일자리 32만7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3만9000명 감소한 셈이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취업자가 5만9000명, 5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8만2000명, 40대는 5만4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3000명)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폭은 코로나19 확산했던 2020년(-15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줄어 2020년(-18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청년층 고용률(46.5%)은 0.1%포인트(p) 하락하며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재학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많이 빠진 상황"이라며 "2022년 청년층 고용률이 높았던 점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9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4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30만3000명이나 늘었다. 작년 취업시장을 여성이 이끌어 간 셈이다.

세운주 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나 둔화하고 있는 산업군에 남성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에서 여성 취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7만8000명(3.0%)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9만명(-8.0%), 6만1000명(-1.3%)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2018년부터 6년 연속 감소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000명(0.1%) 늘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6000명(-5.9%) 줄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부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2%를 기록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5.5%)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4000명(-0.8%)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7만4000명(3.3%) 증가했으나 취업준비자는 8만8000명(-11.5%) 뒷걸음질했다. 구직단념자도 전년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올해는 인구 자연 감소 등과 지난해 고용호조세의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3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고용률은 작년(62.6%)보다 상승한 62.8%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000명(1.0%) 늘었다. 증가폭 또한 전월보다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이후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30만9000명)과 10월(34만6000명) 증가폭을 키웠다가 11월(27만7000명) 다시 축소됐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4000명·3.5%), 정보통신업(8만7000명·8.8%), 건설업(7만1000명·3.4%)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3만5000명·-1.8%), 부동산업(-3만2000명·-5.9%), 농림어업(-2만5000명·-2.0%)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1만명·0.2%) 늘면서 1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계·장비 분야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고 금속 가공과 전자부품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8만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6만4000명, 3만4000명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5만1000명,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7만4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46.0%)은 0.1%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종사자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명(2.5%), 임시근로자는 1만1000명(0.2%)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6만

9000명(-6.3%)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3.2%)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4만1000명(-1.0%), 5만명(-6.0%) 줄었다.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1.7%로 전년보다 0.4%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2%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음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세 국장은 "구직활동을 안 하면 비경제활동 동인으로 빠지는데 작년 12월은 취업자가 증가한 동시에 실업자도 증가했다"면서 "12월 민간 및 공공에서 일자리 사업 채용과 관련해 기간 만료, 신규 채용 등 채용 기간이 겹쳐 있었다"고 분석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는 164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1.1%) 줄었다.

세 국장은 작년 고용시장과 관련해 "돌봄 수요와 보건복지가 증가하고 일상 회복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관련 영역의 취업자가 늘었다"며 "전문과학, 정보통신 등 신기술 지식과 관련된 취업자도 늘었지만, 코로나19 기저효과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디자인, '조니워커 블루 옴피 에디션' 한정판 선보



12간지 에디션 시리즈...비주얼 아티스트 제임스 진과 협업

디자인코리아의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조니워커 블루 옴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니워커 블루 옴피 에디션은 조니워커가 7년째 매년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있는 12간지 에디션 시리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출시하는 이번 에디션은 조니워커의 마스터 블렌더인 엠마 워커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비주얼 아티스트인

제임스 진(James Jean)과 협업했다.

조니워커 블루는 스코틀랜드에서 오크통 1만 개당 하나의 비율로 선별한 원액을 블렌딩해 만들었다.

김화연 디자인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2024년 갑진년을 기념해 조니워커 블루에 한층 특별함이 더해진 한정판 12간지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옴피 에디션'을 올해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주먹밥부터 붕어빵까지 최대 30% ↓" 켈리, '겨울방학 먹거리 대전'

오는 18일까지 기획전 개최

리테일 테크 기업 켈리는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에 '겨울방학 먹거리 대전' 기획전을 오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주먹밥부터 미니 붕어빵까지 200여 개가 넘는 상품들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후기가 6만건에 달하는 유명 맛집 '전주 베타랑' 칼국수, 품질 좋은 소고기로 유명한 '뚝심' 진한 갈비탕 등 따뜻한 국물 밀키트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겨울이면 빠질 수 없는 계절 간식들도 준비

했다.

'모노키친' 미니미 알갱이 구이부터 '밀레베' 미니 붕어빵, '감자밭' 감자빵, '하코야' 타코야키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사육원' 호떡은 꿀, 씨앗, 잼 등 5가지 맛으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게임팩은 '집콕'을 위해 필수다. 마켓컬리의 자체 브랜드 'KS365(컬리세이프 365)' 수면양말, 패딩거실화 등 보온성을 지킬 수 있는 생활용품들도 마련했다. 이밖에 닭요, 전기요, 발난로, 온열마스크도 준비했다.

뉴스스



세븐일레븐, 아시안컵 프로모션 선보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12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대회를 맞아 치킨, 맥주, 음료, 아이스크림 등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글로벌 대회 관전에 빠질 수 없는 치킨의 경우 이달 한국 경기 진행일자에 맞춰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후라이드 한 마리'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혜택 적용 시 치킨 한 마리를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맥주 또한 할인혜택을 선보인다.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스텔라아르투아, 하이네켄, 아사히 등 인기 수입맥주 변들 상품(4입·6입)을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 경기 진행일자에 맞춰서는 카스, 클라

우드생드래프트 등 국산맥주 4종(500ml) 변들 상품(4입·6입)을 25% 이상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카스(500ml) 변들상품(4입)은 8000원에, 그 외 3종 변들상품(6입)은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음료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타스제로(1.5ℓ) 2종 1+1, 19일부터 얼티프프로(250ml) 2종 1+1 행사를 선보인다.

아이스크림은 허쉬바 3종과 하와이안마카다미아초코바 2+1 중점 행사를 진행하며, 단체로 경기를 보며 즐기 좋은 대용량 구구크러스터(660ml)는 20% 할인해 5600원의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유나기자

"김치찌개부터 떡만둣국까지" 이마트24, 5500원 국물도시락 판매



국물 요리 찾는 수요 맞춰, 국물도시락 3종 판매

편의점 이마트24가 추운 겨울 날씨에 국물 요리를 찾는 수요에 맞춰, 국물도시락 3종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참치김치찌개 도시락'은 참치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햄감자채볶음·계란말이·어묵볶음으로 구성됐으며, '부대찌개도시락'은 치즈를 넣은 부대찌개와 매추리알조림·어묵볶음·볶음김치로 구성돼 있다.

또 이마트24는 '떡만둣국정찬도시락'을 고

기만두 3개가 들어간 떡만둣국과 함께 오색전, 해물완자, 시금치, 볶음김치로 구성했다. 1인 가구 고객들도 다양한 명절음식을 맛보며 명절분위기를 낼 수 있다.

이마트24는 '참치김치찌개도시락' 판매를 시작한다 이어 '떡만둣국정찬도시락', '부대찌개도시락'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물도시락 3종 가격은 각 5500원이다.

이슬비기자

해양수산부,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비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8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민기자